

해돋이

역동적 미래를 창출하는 도서관

2022년
제35집



해돋이

역동적 미래를 창출하는 도서관

2022년
제35집

CONTENTS

발간사	06	공포(?)의 꿈자람 독서동아리	20
		장규민 (꿈자람 독서동아리)	
축사	08	원석을 다듬는 한량들	21
		최영재 (넝쿨 독서동아리)	
특별기고		책 이야기	22
다시	09	박영실 (섬돌 독서동아리)	
김태근 (시인, 시낭송가)		Being a driver!	24
상승을 위한 하강이 필요하다	10	신수연(소나기 독서동아리)	
박상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26
먹고사는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12	안효진 (책숲 독서동아리)	
서정홍 (농부 시인)		한마음 25년	28
1 독서동아리 글마당	14	김정경(한마음 독서동아리)	
무서운 치과	15	2 참여 글마당	30
김지유 (한결 독서동아리)		창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31
한알 어린이 독서동아리를 끝내며	16	오세빈 (2022년 책 읽는 가족)	
장준혁 (한알 독서동아리)		책담, 새로운 문화공간	31
질풍노도	17	오규빈 (2022년 책 읽는 가족)	
김예은 (꿈자람 독서동아리)		우리 가족 코로나 극복기: 책! 책! 책을 읽읍시다! ...	32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인생	18	박미정 (2022년 책 읽는 가족)	
강민하 (글밭 독서동아리)			

해돋이

역동적 미래를 창출하는 도서관

2022년
제35집

‘우리 시대에서 단테 깊이 읽기’ 강연을 듣고 나서 ... 34 윤성희 (인문학 참가자)	
죽음의 언어로부터의 도피 36 송정혜 (호모리더스)	
연대가 자리 잡은 곳 38 박혜영 (낭만글쓰기)	
도서관의 온기 40 김은지 (단시간 근로자)	
나를 성장시키는 도서관 42 최정인 (SNS 홍보 서포터즈)	
지구를 지켜요!! 43 윤라원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틀린 게 아냐, 다른 거야 44 전서연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또 한번의 기회 46 임승준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나는 ‘대한민국 살림하는 남자’다 48 양승호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3 특별 글마당 50	
책담 소감 51	
4 직원 글마당 53	
창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나의 성장일지 54 유현 (문헌정보과)	
아는 만큼 즐긴다 56 배연정 (독서문화과)	
내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 58 박다정 (운영지원과)	
특별 부록 60	
해돋이, 빛의 여정	

2022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지난 10월 우리 도서관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책담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움츠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과 함께 지식의 빛을 밝힌 1년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의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밝혀져 나를 이해하게 되며 삶의 변화가 나를 성장시켜 더 큰 세상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1987년에 창간되어 서른다섯 해를 맞는 우리 도서관의 종합문예지 '해돋이' 또한 과거를 품고 현재를 넘어 다음 세상을 밝혀주는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독서회 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 회원들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성인 회원들의 이야기에서 창조적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문학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이야기에서는 문화적 생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낸 가족, 도서관에서 일을 하며 책과 사람의 가치를 발견한 근로 학생, 도서관을 홍보하며 귀중한 경험을

언은 서포터즈의 이야기에서 지역민과 도서관이 공동체가 되어 함께 소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의 삶과 앞으로 나아갈 우리들의 이야기가 해돋이에 모여서 공감을 자아내고 향유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책자 발간을 위해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 책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담긴 종합문예지 '해돋이'에서도 새로운 빛, 미래의 빛, 지식의 빛을 여러분과 함께 밝히겠습니다.

2022. 12.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축사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운영위원장
백 태 현

해돋이 제35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서동아리 회원, 일반 이용자, 프로그램 참가자, 도서관 직원이 함께하는 문예지를 35년간 꾸준히 발간하는 것은 정말 경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해돋이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의 황현경 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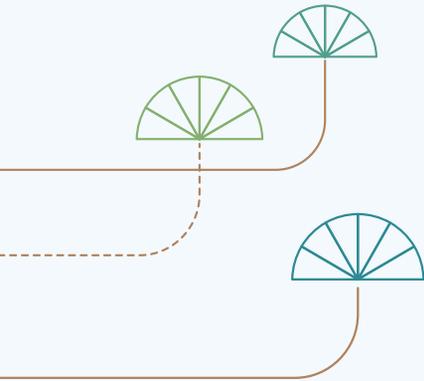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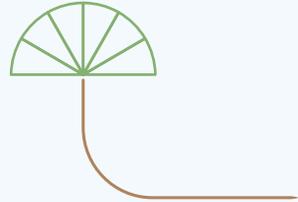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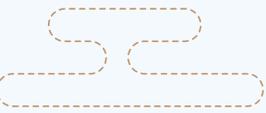
무언가를 글로 남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편하게 내뱉고 흘러지는 말과는 달리, 머릿속 생각을 재정립하고 이를 형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의 땀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창원도서관은 1983년 설립된 이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40여년 동안 도민의 독서문화생활과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책담이라는 미래형 도서관 시설을 건립하여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전국 각지에서 찾는 명소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되는 해돋이 제35집은 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유로 새로운 문화 활동을 누리며, 지식의 빛을 밝히는 공간인 책담은 다양한 문예 활동을 하는 해돋이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한 해가 또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창원도서관의 일년이 담긴 종합문예지 해돋이가 그 이름에 걸맞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운영위원장 백 태 현

다시

‘다시’라는 말 속에는 무한한 꿈이 들어 있다
다시 꿈을 꾸자
다시 처음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자

‘다시’라는 말 속에는 용기와 희망이 들어 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자
늦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품고 노래하자

‘다시’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앉아있다
다시 처음처럼 순수하게 사랑하자
떠오르는 모습, 지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저 태양처럼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
상처하나 없는 것처럼 처음의 가슴으로 사랑하자

새해 첫 하늘이 열리는 새날처럼
새로운 가슴과 가슴으로
다시 일어나 처음처럼 시작하자
다시 다시 시작하자



김 태 근 / 시인, 시낭송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낭송 아카데미’)

상승을 위한 하강이 필요하다

박상진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우리 시대에서 단테 깊이 읽기’

몇 해 전 겨울에 볼로냐의 중앙 광장에 높게 치솟은 성 페트로 니오 성당을 올라다보니 그 꼭대기 첨탑이 하늘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성당이 우리 인간을 하느님에게 인도하는 장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성당의 첨탑들이 하늘로 오를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로 오르고자 하는 염원이 성당 건축에 스며들어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 하늘에 파묻혀 보이는 첨탑들은 하늘에 위치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다보아야 높은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광장에서 위를 올라다보고 나서 성당의 지붕까지 내쳐 올라갔다. 마침 성당의 전면 외관을 수리하느라 비계를 설치해놓았는데, 우리 일행은 성당의 외관을 장식한 조각품들을 살피러 그곳까지 오른 것이었다. 성당이 지어질 당시 외관의 벽을 쌓고 조각품을 붙이는 작업을 한 사람들 이후에 아마도 최초로 그 수평의 위치에서 성당의 상단부를 보고 또 성당을 둘러싼 시내의 전망을 내려다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본 주변의 전망은 좋았다. 원래 이탈리아는 지붕들이 아름답다. 그런데 눈을 들어 위를 올라다보니, 하늘에 그만큼 더 가까이 올랐고 또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는 첨탑의 위

치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더 다가섰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첨탑이 우리 인간을 하늘로 연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지붕 위가 아니라 땅 위에서 서서 첨탑을 올라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첨탑은 하늘에 파묻힌 형상으로 하늘과 일체가 되어 우리의 시선과 영혼을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한편 지옥은 우리의 발 아래에 위치한다. 지옥을 보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발치를 내려다보아야 한다. 하늘과 달리 보이는 것은 전혀 없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시선이 가닿도록 허용하지만, 지표면이라는 껍데기가 지옥에 이르는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하늘은 한없이 높다는 확신을 주지만, 지옥은 한없이 깊다는 추측만 허용한다. 하늘은 올라가야 하지만, 지옥은 내려가야 한다. 하늘은 오를수록 더 오르고 그러한 상승은 무한으로 이어지지만, 지옥은 내려갈수록 깊이가 멀하고 언젠가는 그 하강이 끝난다. 루치페로가 거꾸로 박혀있는 지옥의 중심부가 지옥의 끝이다. 하늘은 우리를 해체시키면서 우리를 하늘 그 자체로 만들지만, 지옥은 우리를 응축시켜서 아주 단단한 알갱이의 배타적인 존재로 만든다.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이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니체의 말처럼, 지옥은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

박상진

한국외국어대에서 이탈리아 문학을 공부했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문학이론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에 단테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제47회 플라리아노(Flaiano) 학술상을 수상했다.

하늘과 천탑과 성당 본체,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을 지옥.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일체를 이루고 있다. 단테의 순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내려가고' 있지만, 하강을 시작하면서 이미 상승도 시작하고 있다. 가장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우선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의 중심부로 하강하는 것이다. 상승을 위한 하강이다. 하강을 할수록 하늘로 상승하고자 하는 염원은 강해진다. 활 시위를 당기는 꼴이다. 지옥의 중심부에서 동굴을 따라 지구의 반대편으로 상승하는 힘은 바로 그렇게 당겨진 활시위의 힘에서 나온다.

하강을 한다는 것, 단테가 지옥의 바닥에 쓰러지고 지옥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침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재생과 부활을 이루는 일이다. 그것은 단테가 나중에 이승으로 돌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양털을 쓴 시인"(〔천국〕 25곡 8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보여주게 될 승리자로서의 선택이었다. 지구 중심부까지 뺀 지옥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단테는 자신의 승리의 행보를 다지고 또 다졌다. 중력은 그렇게 단테가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힘이였다. 허공에 뜬 무중력의 상태가 아니었기에 단테의 발길은 힘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림보에 처한 철학자와 시인들과 달리 단테는 이승을 위한 그 위대한 실천을 저승에서 준비할 수 있었다. 저승의 맨 밑바닥, 그 공공 얼어버린 심연까지 이르도록 단테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로웠으며 철저하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하강, 가라앉기의 경험은 나중에 연옥을 거쳐 천국에서 계속하게 될 상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반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단테의 지옥 순례가 승리와 패배를 연결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본다. 단테는 정치적 패배와 그에 따른 추방의 쓰라린 고통을 철학적 반성과 문학적 성취를 통해 승리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모습을 망명 시절 동안 보여주었다. 그의 승리는 지옥에서 쓰러져 맛보아야 했던 패배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단테는 <신곡>에서 자신의 모습을 승자와 패자가 서로를 온전하게 조응하는 관계로 배치하고, 이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승패의 대립을 넘어서

는 것으로 만들어낸다. 단테가 지옥의 문을 지나서 그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하강의 모습은 이렇게 상승을 예비하면서 하강과 상승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하강과 상승을 반드시 우열의 이분법으로 가를 필요가 있는가. 아니 가를 수조차 없지 않는가. 구원을 상승으로 보는 생각은 오랫동안 굳어져왔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하강으로 보는 생각을 일구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상승과 하강의 본능적인 욕망이 있다. 상승이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라면, 하강은 육체의 불순한 타락의 끝을 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상승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하강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억누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지옥은 지옥을 향한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단테가 지옥으로 내려간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없애기보다는 조절해야 할 대상으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먹고사는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서정홍 / 농부 시인 (경남독서한마당 '작가와와 만남')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막 들어온 긴급 뉴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마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농사짓고 살아가던 몇 안 남은 늙은 농부들이, 농사일 힘에 버거워 자기 먹을 농사만 짓기로 굳게 마음 먹고 농산물을 팔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수입 농산물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농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인도, 칠레 세계 모든 농부들이 이 뜻에 함께하는 바람에 마구 들어오던 수입 농산물마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는 거의 먹고살기 위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대도시 큰 상점뿐만 아니라 마을 구멍가게까지 들어가 먹을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수십 억 수백 억짜리 예매당도 사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평당 몇천만 원 한다는 고급 아파트를 몇만 원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던 조선소도 자동차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식당도 병원도 약국도 모든 관공서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불행 가운데 다행인 일은,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길을 찾아 흠냄새 물씬 나는 농촌 들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 살아가던 쥐와 고양이와 새들도, 사람들이 던져 주는 먹이로 살아가던 모든 짐승들도,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손님을 받느라 불도 안 끄고 잠도 자지 않던 편의점과 식당과 술집과 노래방과 온갖 가게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든 시멘트 건물이 하나둘 폐허로 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떠난 고향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기다리듯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갖은 쓰레기를 다 만들어 내면서 일으로만 지구를 살려야 한다,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떠들어 대던 사람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시에서 들려 드리는 마지막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국도 오늘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럼, 고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뉴스」 전문

위에 소개한 시 '마지막 뉴스'는 도시에서 살다가 산골 농부가 되고 나서 썼어요. 이 긴 시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지요? 산밭에서 혼자 옥수수 밭을 일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는데, 이제 15명밖에 안 남았으니 걱정이구먼. 그것도 모두 칠팔십이 넘는 농부들만 남았으니 더 큰일이네그려.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수백 년 동안 농사짓던 논밭은 어찌될까? 몇 해 뒤에는 아내와 나만 이 마을에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5퍼센트도 안 된다는데, 이마저 농부들이 농사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끔찍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 라면, 짜장면, 짬뽕, 국수, 피자, 만두와 같은 밀제품은 98퍼센트 넘게 수입해서 먹고산다는데…….'

이런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이 시를 썼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뉴스>처럼 안타까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가열화로,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이전 기후 비상사태란 말까지 들리는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로 자연 생태계는 큰 몸살을 앓다가 이젠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을 못살게 구는 두렵고 무서운 이 시대에 우리 함께 '갈'을 찾아야만 해요. 절망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가장 먼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먹고사는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서정홍

가난해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세상이 참되게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준 스승을 만나,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집 『58년 개미』, 『그대로 둔다』, 청소년시집 『감자가 맛있는 까닭』, 동시집 『우리 집 밥상』,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나』, 산문집 『농부 시인의 행복론』, 『농부의 인문학』 등을 펴냈다. 전태일문학상,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서덕출문학상, 윤봉길 농민상 등을 받았다.

1

독서동아리 글마당

어린이 독서동아리

김지유 / 한결 독서동아리

장준혁 / 한알 독서동아리

청소년 독서동아리

김예은 / 꿈자람 독서동아리

강민하 / 글밭 독서동아리

장규민 / 꿈자람 독서동아리

성인 독서동아리

최영재 / 넝쿨 독서동아리

박영실 / 섬돌 독서동아리

신수연 / 소나기 독서동아리

안효진 / 책숲 독서동아리

김정경 / 한마음 독서동아리

무서운 치과

김지유 / 한결

또 내 입 안에 찾아왔다.
총치 군사가
전혀 반가우지 않다.

엄마 손을 잡고
치과에 간다.



기다리는 동안
지이이잉하는 소리가
귀에 맴돈다.
이런 소리가 나면
가슴이 더 두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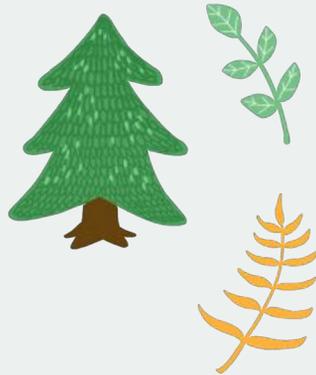
간호사 선생님이
김지유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
치료를 하러 가야 한다.

지이이잉
'조금만 더 참아야지'
생각하며
총치 군사가 떠나기를
기다린다.

휴! 드디어 끝났다.
오늘도 치과는 무섭다.

한알 어린이 독서동아리를 끝내며

장준혁 / 한알



올해도 코로나로 시작되었다. 2022년 한알 어린이 독서동아리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잘 친해지기도 어렵고, 화면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좋은 점은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고 덜 쑥스럽기 때문이다.

첫 수업은 [열두 살 장래희망]으로 했다. 3월 19일 [열두 살 장래희망]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독서동아리는 흥미롭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했다.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목소리도 크게 하고 활기차고, 또박 또박 말했다.

가장 재밌게 토론했던 수업은 10월 15일에 진행한 [지구 구하는 십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는 도서였다. 그레타 툰베리는 10대인데 유명한 환경 운동가이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서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참여해주는 덕분에 유명해졌다. 그레타 툰베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방법은 1개뿐이라고 한다. tree(나무)이다.

나무는 우리가 뿜어내는 매연, 메탄가스, 대기 가스, 이산화탄소 등을 빨아들이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내뿜는

다. 나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나무가 많다.

하지만 브라질은 요즘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낸다. 이리다간 아마존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사막화도 많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인위전, 바이완샹 같은 사람들이 사막을 숲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수목일만큼은 나무를 존중하고 심어야겠다.

봄이 가고 여름을 지나 가을을 넘기고 이제는 겨울의 끝에서 한알 독서동아리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같은 학년 같은 학교 같은 반의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1여 년 동안 카메라를 통해 본 독서동아리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하니 왠지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다.

같은 책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넓이가 훨씬 커진 것 같다. 책이 주는 즐거움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친구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으나 그 의견은 존중해야겠다.

질풍노도

김예은 / 꿈자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네

내가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 애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째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인생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읽고 -

강민하 / 글밭

내 취향과 맞을 거라며 친구가 추천해 주어서 처음 이 책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마침내 이 책을 읽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읽을 책을 찾으며 여는 때처럼 서가를 거닐던 내 눈앞에 유독 그날따라 이 책이 끌렸다. 제목과 표지가 눈길을 잡았고 친구가 추천해 주었던 기억이 나 빌려서 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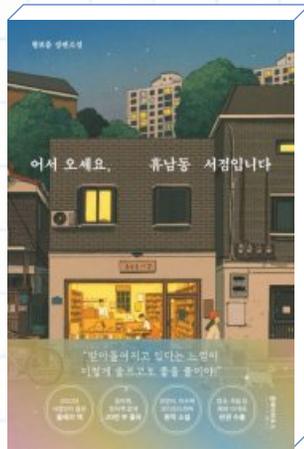
어느 날 휴남동에 서점이 들어선다. 휴남동 서점의 대표인 영주는 초반부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며 묘사된다. 영주의 비밀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밝혀지지만 보통 읽어온 책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반전인, 이야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휴남동 서점의 초창기부터 단골인 민철 엄마, 희주는 종종 영주의 말동무가 되어준다. 휴남동 서점의 독서클럽 중 하나인 일명 ‘엄마들의 독서클럽’의 리더도 말을 만큼 책에도 흥미가 있으며 아들을 위해 하는 행동과 영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인해 깊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휴남동 서점 안의 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민준은 초반에는 별로 말이 없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말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미는 휴남동 서점 안의 카페의 원

두의 로스팅 업체, 고트빈의 사장으로 결혼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있으며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곤 한다.

이 밖에도 꼭 행복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고등학생 민철과 수세미와 목도리를 만드는 정서, 영주와 함께 열은 분홍빛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업 천재 작가 승우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휴남동 서점을 중심으로 담백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무척 매력적이다.

이 작품에서는 꼭 영주만이 비밀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작중 모든 인물들이 저마다의 사정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또한, 이야기가 영주를 중심으로 흘러가기는 하지만 딱히 틀에 정해져 있는 주인공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입체적이게 설정되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다. 특별히 악역이 없었다. 이 또한 내가 이 책에 호감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별한 갈등 없이 소소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좋았다. 물론 완전히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두드러지는 외적 갈등은 없었다.



이 책에서 내가 영주에게서 가장 부러움을 느낀 것을 담백하고 소소한 일상이었다. 책을 좋아해서 서점을 차리고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 책을 좋아하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 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영주의 삶이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까지 읽어본 책들 중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누가 가장 되고 싶냐고 물을 때 현재로서는 당연히 영주라고 말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민준의 친구이기도 한 성철이었다. 성철은 민준의 대학 동기이며 시험 기간에도 영화를 볼 정도로 엄청난 영화 덕후이다. 유명한 영화를 쫓는 현실을 비판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영주와 잘 맞는다고 느껴졌다. 무척까지는 아니어도 밝고 긍정적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유탄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관련된 일인 영화평론가 일을 하다가 휴남동 서점에서 다시 민준과 재회를 하게 된다.

“그래도 웃픈 게 어디냐.”

첫 단추를 꿰었더니 목이 불편해진 성철이 연신 목 부분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뭘가 어딘데?”

“슬프기만 한 건 아니어서 그게 어디냐고.”

“야, 됐다. 머리 나쁜 놈. 너는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들을 줄만 아냐. 내 말의 요지는 이거잖아. 천만 영화라고 해서 다 천만 관객을 만족시킬 만큼 좋은 영화는 아니다. 그러니 천만 영화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좋아하는 영화를 봐야 한다 이거잖아, 응?”

성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다. 또한,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변함없는 성철과 민준의 우정 또한 멋졌다.

책을 읽으며 나만의 휴남동 서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책 속의 인물들처럼 나만의 삶의 의미를 그려나가고 함께 고민해 줄 사람들이 곁에 있는 미래를 꿈꾼다.

공포(?)의 꿈자람 독서동아리

장규민 / 꿈자람

도서관 건물 입구에 섰다. 게임 속 보스 던전을 공략할 때 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생일날 하필 이런 곳에 오게 되다니! 으스스한 분위기의 문이 날 노려보는 것 같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똑똑똑’ 노크했다. 그리고 발을 성큼 내디디는 순간!

“안녕~! 이름이 뭐야?”

“네?”

“이! 름! 이! 뭐냐고~?”

“장...규...민...이...요(섬뜩)”

“그래? 규민이...” 하며 악마의 책 같은 출석부를 찾아보시더니

“어! 규민아~! 저기 앉으렴~!!!”

그렇게 공포의(?) 꿈자람 독서동아리가 시작되었다. (내 생일~! ㅠㅠ)

“자~ 애들아! 오늘 할 책은 『난 빨강』이란 책이야! 이 안에 여러 편의 시가 있지? 가장 인상 깊었던 시를 말해볼래?”

“저는 000이란 시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000이요!”

‘난 딱히 기억에 남는 시가 없는데…….’

“그래 그래. 다른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자~! 규민이 한번 해봐라.”

“저...저요?”

“그래! 너!!”

역시 공포의(?) 독서동아리!

“음...저는 「난 빨강」이란 시요!”

“왜?”

“왜냐하면 작가가 자신을 빨강에 비유한 게 인상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했다! 다음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자.”

‘휴...겨우 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 오늘 첫 수업! 어땠나요?”

“무서웠어요”

“네?”

“아니 아니, 재미있었다고요 ㅎㅎ”

“좋아요! 이만 마칩시다~!”

드...드디어! <공포의(?) 독서 동아리> 던전 1을 크...클리어했다!

‘하, 다음번엔 책을 더 꼼꼼하게, 열심히 봐야겠어!’

그렇게 몇 달을 공포의(?) 독서동아리에 참가하여 티어가 (실력이) 쑥쑥 올랐다.

결국 12월 11일...대망의 마지막 독서동아리 던전...

문을 열고 3월과 같이, 언제나 그랬듯이 들어갔다.

- 본 소설은 픽션입니다.(선생님 사랑해요~) -

원석을 다듬는 한량들

최영재 / 넝쿨

내 나이 포리 포, 난생처음 독서회에 가입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책과 담 쌓고 살아오다 용기 내어 들어간 독서회에서 내 이름만 보고 남성인 줄 오해했노라 말하길래, 책 꽤나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지적 과시에 기가 죽을까 걱정했었노라, 독서회 회장님께 고백하니, “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라며 덤덤하게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4월에 넷째 주 금요일 오전, 이미 푸름이 온 산을 장악하기 시작.

넝쿨독서회(이름도 희한하지)에서 편백 치유의 숲으로 봄 야유회를 나왔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행하는 일행의 맨 마지막을 따르던 독서회원이 하는 말, “옛날로 치면 한량들이야, 한량~.”

편백 숲길을 오르던 일곱 한량들은 산책로 옆에 놓인 의자에 일렬로 앉아서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본다.

그리고 한 소절씩 조병화 시인의 시 [봄이여, 사월이여]를 읊는다.

나보다 열 살, 혹은 스무 살 더 나이든 여성들과 4월의 산중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시를 읊게 될 줄이야! 그리고 그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을 줄이야!

독서회를 가담하게 된 이후 이런 생각지 못한 일은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의 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 탈 때, 가족 나들이 중에 잠시 혼자 있을 때,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나를 어디에서든 주저앉히고 책을 펼치게 만들었으니, 그 이유인즉,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있을 독서회의 선정 도서를 읽고 가야 했으므로!!

또한 독서회는 영국의 건지 섬으로, 나치 통치하의 독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 북부의 라다크 마을 등으로 책장을 타고 날 데려갔다.

내게 이 놀라운 일들의 근원은 독서회라는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계’는 대화를 통해 독서회의 성격, 분위기를 만들고 비로소 나에게(한해에 책 한 권을 보지 않던) 강한 ‘독서에의 의지’로 피어났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마다의 삶의 모습대로 길이나 버린 돌맹이들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툭툭 튀어나온 모가 난 돌맹이가 부딪치면 서로 원치 않는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책이라는 정으로, 토론이라는 망치로 잘 다듬어진 원석들이 있다. 잘 다듬어진 돌들이 부딪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빛을 내니, 가슴이 따뜻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

어김없이 돌아온 12월 둘째 주 금요일 아침.

이불을 개고 아침을 차려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기를 돌리고 고양이 똥 치우고 옷 차려 입고 살짝 짝어 바르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책이든 가방을 둘러메고, 우아한 한량, 집을 나선다.

책 이야기

- 『시선으로부터,』를 읽고 -

박영실 / 섬돌

1984년생 정세랑 작가의 글을 처음으로 읽었다. 영화화되었던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도 정세랑 작가 작품이다. 본문 속에 심시선 여사님도 그랬듯이 작가의 글숨하나 통찰력있는 문장을 내내 질투하며 읽었다. 제목에 들어오는 ‘시선’이란 단어로 페미니즘 경향의 소설일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치욕스러운 폭력의 경험을 요긴한 자료로 활용했다고 ‘어쩌다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에서 고백했다.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 아는 게 없지만 완전히 다른 장르는 아닌 거 같다. 시선이라는 작명은 그래서 더 깊이있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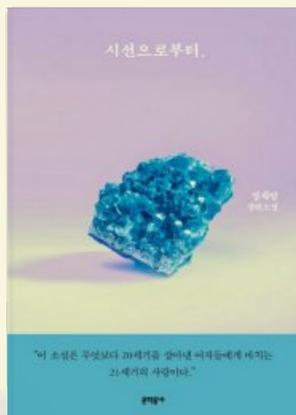
79세 생일파티를 자식들과 기분 좋게 마치고 난 심시선 여사는 작정한 듯 사망한다. 자녀들이 엄마가 자살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만큼 갑자기였다.

“엄마 제사를 지내야겠어. 하와이에서.”

장녀 명혜의 말로 글은 시작된다. 생전에 제사를 사라져야 할 관습으로 주장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사망일에 맞

춰 식당의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고 시간이 되는 가족끼리 모여 심시선 여사를 추모해 왔었다. 10주기를 맞아 의미있게 엄마를 기리고 싶은 장녀 명혜의 뜻에 따라 심시선으로부터 뻗어져 나온 가지들은 모두 하와이에 모인다. 하와이는 심시선 여사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의 총에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정착해 간난신고의 시절을 보낸 의미있는 곳이다. 손자 손녀들까지 각자에게 가장 의미있는 것을 찾아서 심시선 여사가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각 챕터마다 심시선 생전의 에세이와 강연, 인터뷰가 짧게 실려있다. 하와이의 세탁공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미술계의 세계적인 명사 마티아스 마이어. 교육과 기회를 준다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독일로 건너가 고통받는 과정, 독일사람 요제프 리와 민애방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등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성격이나 삶을 그려낼 수 있는 강력한 문장들이 많다. ‘잊은 것에 대해 묻지 마시오’ 라는 글에 그녀는 마티



아스 마이어에 대해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상처입은 심시선을 빼놓을 수 없는 듯 시종일관 불유쾌한 폭력과 조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으로 유명하고 힘 있는 남자의 손에 떨어진 여러 여성 중의 한명으로 그는 어찌다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되었다.

심시선은 부엌살림이나 청소를 깨끗이 하며 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어머니는 아니었으나 세상의 잣대로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지만 자녀들한테 무심하지는 않았다. 늘 소문과 분쟁에 휩싸여 살았으나 가족들과 곁도는 대화는 절대 하지 않았고 아들, 딸이나 두 번의 결혼으로 직접 출산한 자녀와 데려온 자녀를 차별하지도 않았다. 여러 외국어를 할 줄 알았으며 욕도 아주 잘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양인은 아니었다. 원래 그림을 그리는 화가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글을 쓰며 생계를 유지했다. 보상을 바라지는 않았다. 마티아스 마이어가 자살

하면서 그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각자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고, 모여앉아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추모하고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간다. 결혼생활을 매년 갱신하며 살아가는 계약처럼 생각한다는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딸들이다.

‘심여사 닮았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라며 가장 약한 이들조차 그 위안을 하며 살아간다. 엉망으로 추악한 세상 속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면서...

오래전부터 나도 제사를 반대한다. 명혜 남매의 방식대로 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난 나를 기렸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단점에도 서로 사랑했었다면 족하다. 어떤 영향을 준 부모였는지 생각이 깊어지는 책이었다. 신산스런 삶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멋진 엄마였었기를 바란다.

Being a driver!

신수연 / 소나기

40돌을 맞이한 오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20대까지의 저는 행동반경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계절 스포츠와 무서운 놀이 기구, 과감한 번지점프,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등 활기가 넘쳤습니다.

파아랳고 팔팔했던 20대의 끝자락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세월이 까무룩해진 지금, 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 꿈에 그리던 이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문득 가정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왜 책을 읽으세요?”

어느 날 창원도서관 ‘소나기’ 북클럽의 이쁨이, 김혜경 강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저에게 독서는 ‘탈출구’라고 대답해 놓고, 왜 그런 대답을 한 건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정해놓은 노선을 따라서 졸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어느덧 내 삶에서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

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왠지 다시 운전수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정신의 여행을 시작했고, 책을 읽는 순간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수많은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소설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일본 인구의 5%는 강제로 책을 보지 못하게 해도 입을 인간들이고 그들이 있기에 출판업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엇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 5%의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 대화의 갈증을 느끼는 중에 ‘소나기’ 북클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소나기’ 북클럽 모임은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40대에 설렘을 느끼며 모임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살짝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여름 바람이 간간이 불어오고 신록이 푸르른 날이었습니다. ㄷ자 모양의 책상에 둘러앉



아 서로의 이름과 첫 책 [콘트라바스]를 나누었습니다. 8월에는 [언어의 높이뛰기], 9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10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1월 [휴먼카인드]를 함께 읽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책인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책을 나눈다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서평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다섯 명과 책을 나누면 다섯 개의 새로운 시각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감동적인 구절을 다섯 사람의 감동 포인트로 다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같은 글을 읽고도 각자의 성장 배경과 현재 배경에 비추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경험이고 시간이기때문에 그 어떤 의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이해’를 넘어 독서토론의 백미는 같은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꼭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의 회원님을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요!

40이 넘어가며 사람은 각자의 섬에서 각자의 색을 가지고 산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각자 가진 색을 더 짙게 만들어간다고 느낍니다. ‘소나기’ 독서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배경이나 종교, 나이, 정치색과 같은 우리 각자 만들어 낸 색과는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 선정된 도서 속에 담긴 글만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내 섬과 다른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더 놓게 만들고 우리의 색이 서로에게 물들어 더 열어지고,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매달 선정된 도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책 빠꾸미 회원님들이 엄선해서 선정한 도서는 저에게 가르침이 주고 감동을 남깁니다. 저에게 매달 설렘을 주는 소중한 ‘소나기’ 독서모임과 이쁨이 김혜경 강사님, 배주완 사서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달부터는 신축 건물인 책담에서 모임을 하게 되니 설렘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책들이 기대됩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안효진 / 책순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다 우연히 독서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친구와 함께 대학 졸업 이후 처음으로 동아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단비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참석 전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그만 그날 새벽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 첫째 날은 슬프게도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 첫째 날 참석하고 온 친구는 선생님께서 직접 책을 읽어 주시고, 작가에 관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으니 불참하게 된 게 더욱 더 아쉬웠다.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한 달에 한 작가를 테마로 작가의 여러 작품을 함께 살펴보는 형식이었는데, 처음 시작은 문미화 선생님께서 책들을 소개해 주시며 그중에 한두어 책을 동화 구연을 해주시고, 작가의 간략한 소개와 다수의 저서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신다. 그리고 나면 책에 대한 이야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의 동아리 회원들과 간단히 나누고, 선생님이 가시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 형식으로 동아리 회원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동아리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유익하다!'는 거다.

주로 그달의 저자와 저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나 연관된 책들에 관하여, 관련된 전시나 행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니, 또 양육에 있어서 선배님(?)들의 사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들을 수도 있으니, 정말 유익했다. 특히 문미화 선생님께서 처음 동화구연을 해주실 때는 나도 모르게 아이가 되어 몰입했다. 너무 맛깔나게 읽어 주셔서 들으면서도 '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창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대여하여 읽어 주었는데,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했고 나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즈음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전시회를 갔을 때에도 선생님과 동아리 회원들과 나눴던 대화, 추천해 준 책을 떠올리며 더 꼼꼼히 전시를 보게 되었다. 보통 동아리 가기 한 주 전에는 나도 동아리에 가서 대화를 해야 하니 관련된 책을 읽고 검색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인터뷰 글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서평들을 보곤 하는데, 이 시간도 참 좋았다. 왠지 그 작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작가와 작품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게 참 재미있고 유익했다.

책은 같이 읽어야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 내가 보던 시야를 더 확장해 주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내가 동화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과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기쁜 마음에 태고 때부터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요즘 들어 첫째와 둘째에게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고르게 하고, 그 책을 읽어 주면서 동화책의 매력에 푹 빠졌다. 동화책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어디든 데려가 준다. 어느 날은 숲으로, 어느 날은 우주로, 어느 날은 동물의 마음속으로, 어느 날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행하게 한다. 여행을 마치고 나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읽어내지 못한 두꺼운 서적들을 뒤로 하고 동화책 속의 한 줄, 어찌면 한 단어, 한 장면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웃음을 얻는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보다 내가 더 동화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혼자 느낌 가는 대로 책을 고르곤 했었는데, 선생님의 강의와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모르던 작가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들의 작품을 알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도 나눌 수 있어 참 풍성해졌다.

특히 동아리를 참석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시간을 말해보라면 ‘윤지희 작가’를 소개받고 그의 저서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다. 작가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동화 작가도 동아리 회원인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나만의 색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였다. 작가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워서일까? 뭔가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작가가 어떤 심정에서 이 동화책을 만들었을지를 상상하게 되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작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는 분명 내가 읽었을 때보다 ‘과거’다. 그러나 그 작품을 읽는 순간 그 작품은 ‘지금’이 되고, 나는 지금을 여행한다.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잊고 있던 나를 만나고, ‘지금’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다. 어찌 보면 동아리를 하는 목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나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다. 혼자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나누다 보면 배가 되고,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이를 통해 나의 삶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물론 동아리를 하다 보면 정기적인 스케줄이 생기게 되니 그 시간에 나가야 하고, 사정이 생기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차 가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테마별로 그 달의 주제가 매번 달라지니깐 매달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의 나’를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





한마음 25년

김정경 / 한마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펼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책갈피 속에 끼어있는 작은 하얀색 네모 종이, 한쪽 면이 매끈합니다.

‘이 책을 읽던 누군가가 좀 아팠나보다, 파스 한 장을 붙였구나.’

저는 그를 모릅니다. 책은 고단했지만 책장을 넘기는 그에게 다가가 파스의 약물이 스며들지 못한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었겠지요. 그는 따뜻한 위안으로 조금은 덜 쓸쓸하고 견딜만해졌을 겁니다.

책은 조용하고 그윽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꿈을 꾸게 하니 시간과 온도를 품은 강인한 생물이기도 합니다. 고전은 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서 좋고 새물내 나는 책은 달릴 곳 없는 도시에서 미지의 광활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며 책장을 넘길 때 종잇장에서 나는 소리와 사르르 베일 듯한 손맛, 그 가볍고 하찮은 것에도 중독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사소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도 자주 휘청거리나 봅니다. 주저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는.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은 유정한 눈빛으로 저를 읽고 있습니다.

수축이나 이완의 기능을 외면한 채 융통성 없이 당위성의 횡포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림에도 화려한 꽃만은 어떻게든 피워내려 허둥대는 사람, 수천 년을 살아온 책은 그런 저를 좀 가여워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눈이 조금씩 뜨이겠지.’ 그렇게 지지리도 철들지 못 하는 저를 긴 세월 내내 마중 나와 기다려주었습니다.

선진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을 찾으면 새로운 길을 내어 주며 순리에 따라 멈추지 말고 흘러갈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흘러가는 이 길을 다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저 흐르기만 하는 것은 아님을, 가고 나면 구만 리 청천 길이 됨을 압니다.

부디 맑게 흘러가야겠습니다.

창원도서관 소속 한마음 독서회가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독서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엮고 안고

왔었던 제 아이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진실하고 소신과 용기로써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마음 독서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 낯선 도시에서의 25년은 어쩌면 아주 다르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섭취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의 문제이고 내 삶에 마중물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지내 온 사랑하는 한마음 분들,

벚꽃 도로 옆 작은 본관에서 시작하여 큰 도서관으로 살
뜰하게 키워 오신 창원도서관 분들,

모두 너무나 고맙고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참여 글마당

오세빈·오규빈 (책 읽는 가족)

박미정 (책 읽는 가족)

윤성희 (인문학 참가자)

송정혜 (호모리더스)

박혜영 (낭만글쓰기)

김은지 (단시간 근로자)

최정인 (SNS 홍보 서포터즈)

윤라원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전서연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임승준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양승호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창원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께

오세빈 / 2022년 책 읽는 가족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빈입니다.

저는 창원도서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책이 많고 특히 이번에 새로 지은 책담이 인테리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빌릴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옛날이야기랑 창작이야기, 시 등을 좋아하는데 꿈담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권장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 참에 제가 추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도둑왕, 김학구를 잡아라!'입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이번년도만 해도 약1,320권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책 많이 보셔서 책 읽는 가족이 되어보아요! 책 읽는 가족상을 받으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책담, 새로운 문화공간

오규빈 / 2022년 책 읽는 가족

최근 창원도서관에서 '책담'이라는 신관을 지었습니다. 이 '책담'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디지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당장 파주 '지혜의 숲' 사례만 보아도 도서관은 이제 단순 도서 대출·반납을 수행하는 공간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담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창원도서관이 노력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에 그치지 않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1층에 있는 어린이 서가에는 빈백과, 침대처럼 폭신하고 지붕이 있는 의자, 친근한 부엉이 모양을 하고 있는 책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층에는 계단식 열람 공간인 '해오름'을 만들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죠.

책담에는 여러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중 주목할만한 것은 '미래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에서 도서관 최초의 멀티터치 기술이 적용된 일종의 도서검색 시스템인데, 키워드를 입력하면 시가 자동으로 시대, 작가별로 도서를 추천해주어서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찾은 도서를 '미래의 발견'에 있는 대형월로 보내어 저장할 수도 있어서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사서봇(?) 같은 로봇이 돌아다니며 책을 점검(?)하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보는 건 처음이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뒤쪽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인 것 같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도서관 특유의 고요함과 딱딱함 때문에 도서관은 갈 때마다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책담은 활기차고 즐거운, 그야말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부감도 들지 않고 가자고 할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책을 읽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고. 새로운 문화공간이라고. 앞으로도 이런 책담 같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도서관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가족 코로나 극복기: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박미정 / 2022년 책 읽는 가족

2021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히 엄마인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모든 분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만 우리 가족은 여러모로 악조건에서 2021년을 맞이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경영적인 어려움으로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이들은 중학생인데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집에서 해야 하니 하루를 꼬박 컴퓨터 앞에서 보내야 하고, 주부인 저는 하루 종일 주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차리고 치우고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고 맞벌이하며 가정을 돌보는 훌륭한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순간 저는 말을 잃고 항상 인상을 쓰며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아빠의 모습이 밍고, 수업한다고 컴퓨터 앞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엣가시였습니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남편을 앞세워 창원도서관을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서관은 거리가 좀 있는지라 차를 항상 타고 와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공격적인 독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눈 건강을 지키지 못할 바에 마음 건강이라도 지키고자 남편은 역사를 좋아하니 역사책을, 저는 소설을 좋아하니 소설을, 큰아이는 중학교 고학년이라 학습에 관련된 책으로, 작은 아이는 SF와 판타지 소설을 선택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사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있어 줌수업이 끝난 오후부터는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보내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빠가, 수업을 핑계로 컴퓨터를 끼고 살던 아이들이, 주방에서 손목이 부러져라 인상을 쓰며 설거지만 하고 있던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물어보는 교과서에 실린 딱딱한 역사를 재밌게 이야기해주며 대화도 하게 되고, 그게 시작으로 사춘기 아들과 아빠의 마음의 거리도 많이 좁혀지고, 저는 쌓여있는 집안일을 잠시 중단하고 책을 보니 불안했던 마음과 스트레스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은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어 잘 지내던 중 도서관에서 온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책 읽

는 가족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쁘고 얼떨떨한 소식이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상패도 받고 사진도 찍고 즐겁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간의 긴장과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기쁘고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회사가 정상화 되어 바빠지고 아이들도 등교하며 일상이 바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진 주부인 저는 책 읽을 시간이 더 많아져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E-Book도 많이 보고 영상으로 쉽게 많은 것을 접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 종이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영상에서는 줄 수 없는 종이책 만의 감성과 감동을 다른 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예전에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우리 시대에서 단테 깊이 읽기 강연을 듣고 나서

윤성희 / 인문학 참가자

우리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열어주는 세 줄의 문장은 70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들의 마음을 숙고하게 만든다. 살아서는 감히 가볼 수 없는 곳, 저승의 모습을 노래한다. 첫 느낌에 끌려 책장을 넘겨본다. 하지만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지식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잘 이해하지 못하니 책장 넘기는 속도는 자꾸만 늦추어진다.

그때 좋은 소식을 들었다. 가을을 맞아 창원도서관에서 '단테 깊이 읽기' 강연을 준비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하루 강연이 아니라 4주 동안 원전 번역자이자 단테 신곡의 권위자인 박상진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다하니 기대가 되었다.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놓칠세라 강의 신청을 하고 매주 수요일을 기다렸다.

첫 강의를 듣기 위해 창원도서관을 방문한 날,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아이들과 찾았던 도서관 모습이 아니었다. 새로 증축된 건물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기까지 했다. 이 멋진 공간에서 음악도 듣고 강의도 듣고 자주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설도 좋았지만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음이 행복했고 교수님의 강의는 두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첫 주 강의는 특히 좋았던 것 같다.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맞잡는 시를 쓰다'라는 주제로 단테의 철학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베아트릭체를 읽고 정치인으로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가 조국을 등지고 망명의 길을 걸으며 깨달은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신성을 이해하고 신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 필멸의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구원의 여정은 철학과 신학의 조화였으며 관조의 활동을 통해 신성과의 조화를 이룰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단테는 그리고 강의는 굵직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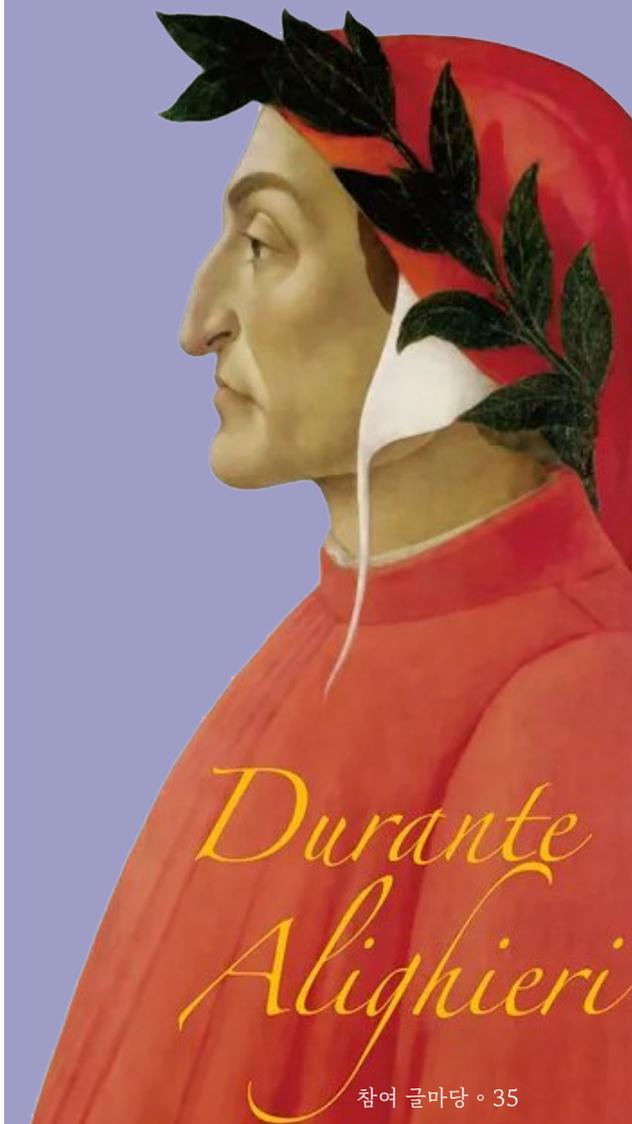
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관조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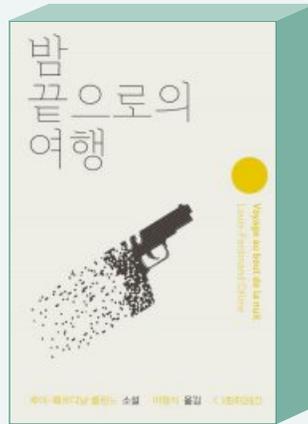
두 번째 강의부터는 교수님께서 보편적으로 강의하시던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단테는 누구인가. 지옥의 문 앞에 선 인간, 로망이 빛어낸 단테라는 다양한 주제로 단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셨다.

4주간의 강의를 들으며 오래전 아이들과 함께 그 유명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났다. 묵직하고 어두운 청동의 문 앞에서 그저 '다양한 지옥의 모습을 담았구나. 웅장하구나.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네.' 정도만 이해하고 사진 찍기에 바빴던 무지했던 나를 떠올려 보았다. 다시 한번 그 곳에 설 수 있다면 오래오래 그 문 앞에 서 있고 싶다. 인생의 반 고비를 훌쩍 넘긴 지금의 나는 구원을 위해 길을 찾았는지 찾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단테 깊이 읽기 강의를 듣고 나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읽지 않고 이해했다고 여기는 것은 바닷물에 발을 담가 보지 않고 바다를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박상진 교수님께서 배경지식을 이렇게 많이 전해주셨으니 분명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 생각해본다. 또한 이렇게 소중한 강연을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창원도서관에 감사드린다. 일회성 강의가 아닌 4주간의 강의는 분명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서관의 좋은 시설, 유익한 강의, 다양한 책을 읽으며 성장하는 교양인들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학습하는 사회만이 성장된 미래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죽음의 언어로부터의 도피 - 『밤 끝으로의 여행』을 읽고 -

송정혜 / 호모리더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간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세계문학 기행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세계문학 읽기는 집에서 편하게 대가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장소와 시간으로 떠나,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여행이다. 세계 3대 문학이라 칭해지는 영국, 러시아 문학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 문학을 탐험한다. 발자크, 플로베르, 졸라 등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을 거쳐 이달에는 20세기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인 『밤 끝으로의 여행』을 만난다.

『밤 끝으로의 여행』(1932년)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프랑스에서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리는 켈린느의 대표작이다. 소설가는 자기 안에 없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바르다위의 행보는 켈린느의 삶의 궤적과 흡사하다.

켈린느는 의대를 다니다 충동적으로 입대하여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그는 전쟁을 통해 문명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퇴역 후 켈린느는 무역 회사와 계약하여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플랜테이션 감독 일을 했다. 이 경

험을 바탕으로 그는 소설에서 무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유럽의 제국주의를 비판한다. 이후 그는 프랑스에서 빈민촌 의사로 활동하며 미국으로 수 차례 출장을 다녔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그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의 살벌함을 목격한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포드 공장을 방문한 후 분업화와 대량생산체제로 인한 인간 소외의 장면도 목도한다.

켈린느는 이러한 삶을 바탕으로 『밤 끝으로의 여행』에서 전혀 영웅적인 서사를 만들지 못하는 반(反)주인공 바르다위의 여행기를 써 내려간다.

바르다위는 인간에 대해서 극도로 어두운 시각을 지니고 있다. 전쟁과 빈곤을 통해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본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경멸한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썩은 '고깃덩어리'이자 냄새나는 '배설물'이다. 그는 소설에서 인간의 비열함과 잔인함, 거짓과 위선, 물욕과 음욕, 질투 등을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바르다뤼와 그의 친구인 로뱅송이 경험한 전쟁, 아프리카 식민지, 미국, 파리 빈민촌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켈린느는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란 억압과 부조리의 굴레이며 고난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밝고 희망적인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오직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한 마약과 최음제일 뿐이라고 한다. 우리가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질병과 죽음뿐이라고 한다.

이 소설은 또한 정신분석의 좋은 사례가 된다.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했지만, 라캉은 언어를 통해 무의식이 표출된다고 했다. 『밤 끝으로의 여행』에서 바르다뤼는 언어와 불화한다. 바르다뤼는 1차 세계 대전의 전장과 프랑스령 아프리카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죽음의 언어’를 피해 ‘밤 끝으로의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죽음의 언어’란 장군, 특무상사, 시장, 군의관 등으로 형상화되는 상징계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언어’로 ‘죽고 죽이기’의 지옥을 불러오는 언어이다.

바르다뤼가 추구하는 ‘밤’은 침묵하는 세계이며, 이것은 ‘어머니’ 즉 여성의 육체와 관계된다. 그러한 이유로 바르다뤼는 말 없는 여성의 육체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고, 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밤 끝으로의 여행’은 결국 아버지의 언어인 ‘죽음의 언어’에서 벗어나 모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죽음의 언어를 피해, 고통을 피해 아프리카로, 동경하던 아메리카로 또다시 프랑스로 돌아와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종류

만 달리한 고통과, 허무와 죽음뿐이다. 삶은 어디서나 고통이고, 인간은 어디서나 악랄하다.

켈린느는 인간과 삶에 대한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밤 끝으로의 여행』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비속어와 구어, 은어를 사용한다. 문학 비평가 ‘가에탕 피콩’은 이 소설을 “인간이 지금껏 소리친 것들 가운데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이라 정의했다. 이 소설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비교되기도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귀족 계급의 문어체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이 소설은 하층계급의 구어체 프랑스어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충격적인 문체와 잔혹한 사회 묘사로 인해 출간 당시 문학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켈린느는 또한 반유대주의 작가로 악명 높다. 그는 2차 대전 무렵 반유대주의 시각을 담은 팸플릿을 작성했고, 반유대주의 모임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그의 반유대주의 사상은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인색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택받았다는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인간에 대한 분리와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이념적, 권력적 상징계에 대한 분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잔혹한 홀로코스트에는 찬동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적으로 그는 장기간 감옥살이를 했고, 전후 프랑스 법정에서 국적과 재산을 박탈당했다. 사면된 이후에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했다. 그의 치명적인 과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학적 성과는 인정받아 켈린느는 카뮈와 더불어 20세기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대가 자리 잡은 곳

박혜영 / 낭만글쓰기

뜨겁다. 내 안 깊은 밑바닥에서 시작된 뜨거운 화염이 나를 집어삼켰다. 매일 밤 뜨겁게 달뜬 몸을 누이나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밝은 밤이 깊고 길어질수록 내 안의 화염은 점점 선명하고 뚜렷하게 힘을 키웠다. 갈수록 몸의 주인인 나를 압도한 괴물의 형태가 됐다. 괴물은 나로도 모자라 남편과 어린 아들에게로 삼시간에 번져 모두 태워 버릴 것 같은 날이 반복되던 때,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과 마주했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담긴 붉은 괴물은 다름 아닌 내 모습이었다.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는 끝끝내 괴물이 됐다.

나는 호수의 수면 아래 버둥대며 안간힘을 쓰는 백조의 발 같은 삶을 살았다. 착한 딸, 모범생, 현명한 아내, 자애로운 엄마라는 이름표가 더 이상 나를 버틸 수 없게 했다. 나와 사뭇 다른 결을 가진 아들을 키우는 시간은 자꾸만 내 안의 다른 나를 꺼내 놓아 힘들었다. 아무렇게나 구석에 던져 놓았던 감정은 주인의 돌봄을 잃어 엉켜 차곡차곡 내 마음을 채워갔

다. 사십 년의 긴 시간은 오래되고 묵은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바삭 마른 장작더미로 만들었다. 작은 스파크에도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영킨 감정이 육아라는 도화선에 의해 붉은 괴물이 됐다. 내 안의 불길을 가라앉혀야 했다. 괴물을 끄집어 내야 했다.

내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는 아이들 일고여덟은 모여야 안을 수 있는 연리지 나무가 있었다. 이곳은 마을의 공동 육아 터이자 놀이터였으며 어른들의 달궈진 숨을 돌리는 쉼터였다.

한낮이 되면 들이나 밭에서 일하던 농부와 뜨거운 해가 솨바 꼭질을 시작했다. 솔래인 해를 피해 온 농부는 온몸에 품은 뜨거운 열기를 무성한 연리지 나뭇잎으로 뒤덮으며 몸을 숨겼다. 솔래는 끝끝내 숨은 농부를 찾지 못해 누엿누엿 산을 넘었다. 그 틈에 농부는 탁주 한 사발씩 나눠 마신 후 목침 베고 누워 다디단 한숨 자고 일어나 들로 밭으로 다시 일하러 갔다.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서 시끌시끌 소란스럽게 뛰어놀



았다. 연리지 나무에 올라 날다람쥐가 되기도 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아낙들은 시원한 그늘 속에서 젖을 먹이며 수다를 떨고 더위를 식혔다. 눈으로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챙겼다. 그곳은 어린 우리들의 소란스러움도, 들일 발일하다 숨 돌리는 어른들이 건네는 시답잖은 우스갯소리도,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도, 한여름 뜨거운 열기가 묻은 땀도 쉬이 사라지게 하는 모두의 쉼터였다.

2021년 아들을 통해 나라는 괴물과 마주한 그해, 창원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다. 20회기 수업 일정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록하여 자서전으로 출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긴 과정이라 걱정이 많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로 어린 아들의 육아가 옮겨와 더 그랬다. 하지만 내 기우였다. 수업에 함께한 동료들은 아들과 나를 대견하다며 지지했다. 내 걱정 따위는 나뭇잎 위로 살랑이는 바람에 날려버린 동료의 따뜻한 태도가 있었다. 그들의 다정한 말은 마른 내 마음을 촉촉하게 했다. 그렇게 참여한 수업 시간은 어린 시절의 연리지 나무 그늘에 앉아 느낀 휴식이 됐다. 그들이 살아온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내 귓가로 불어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도 역시 세상에 근심, 걱정, 거센 파도를 용기 있게 헤치고 지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을 태우고 있는 열기를 조금씩 가라앉혔다. 바싹 마른 감정에 촉촉한 단비를 선물했

다. 서서히 내 안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도 뱉어 내지 못한 묵은 감정은 글이 됐다. 내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준 그들과의 시간은 또 다른 나와 마주하게 했다. 인정하게 했다. 그 시간을 통해 묵은 감정을 끄집어내 털어내는 법을 배웠다.

자서전 쓰기 수업을 끝내고 헤어짐이 아쉬웠다. 동료들의 마음도 나와 같았다. 우리는 <낭만에 대한 글쓰기>라는 독서모임을 만들었다. 올 2022년부터 매월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혼자 읽었을 때 내 안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 같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더해지고 보태져 점점 크고 넓은 바다로 향하는 듯하다. 책에서 배운 삶의 지혜와 동기 회원들의 경험들이 합쳐져 다양한 색깔로 내 안에 스며든다. 창원도서관의 자서전 쓰기 수업과 독서모임을 통해 드디어 내 안의 괴물을 잠재운다. 밖으로 끄집어낼 용기가 생긴다.

나에게 도서관은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연리지의 무성한 나뭇잎이 만든 그늘에 모여 서로를 챙기며 함께하는 연대의 장소이다. 어린아이들의 시끌시끌한 소리가 시원한 바람이 되고, 따뜻하고 든든한 동료들의 말이 촉촉한 단비가 된다. 은은히 코끝으로 맡아지는 종이 냄새는 엄마 품의 젖내 같아 편안하다. 이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인 이곳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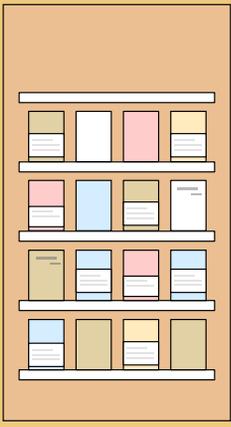
김은지 / 단시간 근로자

근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이 유독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 가끔 방문했던 과거 자신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자료의 다채로움과 각종 활동들의 잔잔한 활기에 어느새 저도 스며들었나 봅니다.

자료실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는 그저 의무로 평범한 서가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를 존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모든분의 다양한 노력이 은연중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용자가 지루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바쁘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서는 조용하고 여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도서관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와 출입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어떤 행사가 있는지 기대하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주제의 책들이 전시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자료실 앞에 전시된 그림 원화도 흥미롭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지어 퇴근할 때는 도서관 통로에 부착된 호랑이 모자이크에 스티커를 하루에 하나씩 붙이는 사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행사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도서관 이용자와 내적 공감이라는 느낌과 동시에 활동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날엔 많은 양의 도서나 CD, 비디오북 등의 자료들을 관리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납 도서들을 서가에 정리하면서 독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등 곳곳에 숨겨진 도서관의 가치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즐거움과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령대나 주제 등에 따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성격은 다 달랐습니다. 유아도서를 꽃다가 제목과 특이한 형태에 이끌려 책 표지와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무조건 연령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황하게 긴 성인용 책보다 얇은 동화책 한 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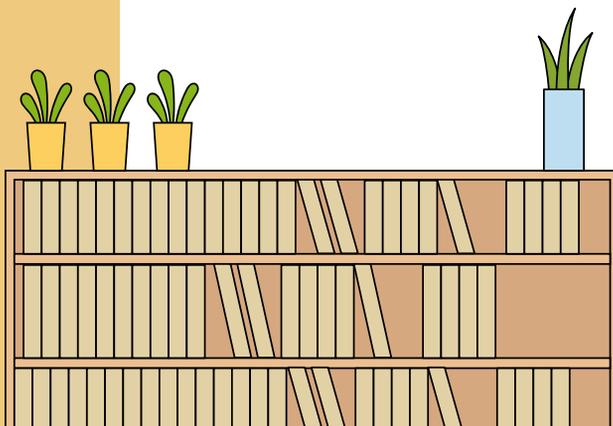




더 큰 여운을 주기도 했습니다. 잡지나 신문 등을 들고 연속간행물실을 나오시는 이용자를 보고 책만 고집하던 저의 좁은 견문을 깨닫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누르면 소리가 나는 책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등 매체의 다양한 종류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용자들이 한 번 왔다가 가시면 신간서가의 책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저 새 책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신간 책은 현재 유행이나 정서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사서의 노력과 선택,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때문에 많이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응을 하면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이용자 출입 체크를 하면서 손과 발이 시렸지만 꾸준히 도서관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이용자분들과 항상 챙겨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자료실에서 책을 찾고 계시는 이용자를 도와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며 미소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책을 서가에 꽂다가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책을 읽고 있는 이용자, 서가 사이에 앉아 집중해서 책을 읽는 어린이 이용자 등 열정적인 독서의 현장을 보면 덩달아 저도 일할 기운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알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창원도서관과 이곳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가르쳐주시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얻은 귀중한 시간과 경험을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도서관

최정인 / SNS 홍보 서포터즈

올해, 3월 벚꽃에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기 시작할 때쯤, 창원도서관 SNS 서포터즈 활동이 시작되었다.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창원도서관을 종종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 이용자로 있었을 때, 창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참여해 보고 열람실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창원도서관의 전반적인 제반 환경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창원도서관 SNS 서포터즈를 줄여서 '창도 캐스터'라고 부르는데, 서포터즈 활동의 진행 방식은 매달 2개 정도의 창원도서관 홍보 게시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불시에 주어지는 서포터즈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의 서포터즈 활동은 창원도서관에서 매달 출간되는 도서관 소식지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블로그에는 도서관 행사 참여와 도서관 방문기를 적는 것이었다.

도서관 행사 참여 홍보 게시글을 적을 때, 대학교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사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내가 선정한 도서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조사하기였는데, 창원도서관만의 특색이 묻어있는 프로그램으로, 갤러리 창과 경남의 스토리텔링 소식지를 선정하였다. 갤러리 창은 창원지역 작가들의 갤러리를 전시하는 공간이고 경남의 스토리텔링은 경남지역 여행지와 지역 작가, 동네 책방이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창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책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경남지역의 작가들을 알

리고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면 새로운 정보를 더 얻어갈 수 있게 경남지역을 홍보하고 분위기 있는 책방까지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원도서관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창도 캐스터로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홍보 방법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였다. 이용자의 입장으로 행사를 보고 느낀 점과 깨달은 점 등을 서술하면서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문구도 중간중간 사용하였다. 그리고 확장 공사를 통한, 창원도서관이 책담 건물을 개관한 모습도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단순히 책을 읽으러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보다 더 넓어진 쾌적한 공간을 활용해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배우며,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잘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원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문화생활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이번 창도 캐스터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적인 측면과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적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창도 캐스터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 이용자들을 위해 이로운 기능을 하는지 알지 못했을 값진 경험들을 선물 받은 나날들이 나의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지구를 지켜요!! -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

윤라원 / 창원도서관장상 초등부(저) 수상자

이 책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한 책이다. 우리의 1초에도 일회용컵이 태어나고, 1초에도 맹그로브 나무, 야자나무, 구상나무 등이 사라진다. 1분에도 새우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1분에도 청개구리, 열목어, 수달같은 생물이 사라진다. 하루에도 새 에어컨이 태어난다. 하루에도 털줄원손집게, 푸른 바다거북, 대왕 조개가 사라진다. 한 달에도 새 자동차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한 달에도 많은 포기의 예쁜 꽃이 사라진다. 1년, 10년, 50년 뒤에는 사람들은 누구랑 놀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뿐인 쓰레기별에서 생물조차 다 없어지고 난 후일 텐데. 나는 엄마의 분리수거를 도와서 버린 적이 있는데,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인 걸 본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 내가 쓰레기를 버릴 때 나는 똑소리가 한두 번 나는 게 아니었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런 소리가 매일 나고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다. 지구의 반 이상의 쓰레기가 될 것 같다. 어떤 책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모여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물건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고, 발전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에는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용품들이 많이 생기면 환경파괴도 덜 되고 정말 좋을 것 같다. 요즘 새로 만들어진 친환경 오토 물병같이 말이다. 껍질까지 모조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숲 체험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앞으로는 공기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 책을 읽고 지구를 아끼고, 소중히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틀린 게 아냐, 다른 거야 -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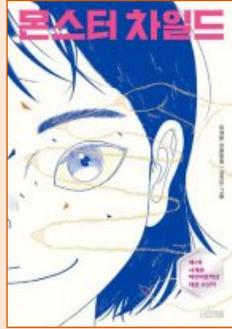
전서연 / 창원도서관장상 초등부(고) 수상자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MCS)은 어린아이들에게 발작과 신체 변이를 일으키는 병이다. 주인공 '오하늬'는 MCS 환자이다. 하늬의 동생 '오산들'도 마찬가지로. 둘은 그 병 때문에 수없이 전학을 다닌다. 하늬의 엄마는 아이들이 변이되지 않도록 치료센터를 데려가고, 변이를 억제 시키는 약을 먹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늬가 일곱 번째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다른 MCS 환자인 '강연우'를 만난다. 연우는 하늬와 달리, 약을 먹지 않고 학교에서 변이를 해 흉측한 모습으로 운동장을 걸어 다닌다. 학교 친구들은 그런 연우를 따돌리고, 그 모습을 본 하늬는 MCS인 것을 더 끔찍 숨긴다.

어느 날, 하늬는 갑자기 완전 변이를 일으켜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만 연우가 도와준다. 둘은 변이를 한 채 나무를 올라타며 자유롭게 실컷 논다. 그렇게 하늬와 연우는 비밀 친구가 된다. 하늬는 변이를 해가며 자기 안에 있는 아이와 친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이 책을 읽고 나는 하늬가 불쌍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MCS는 자신이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닌데 MCS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다. 또한 사회는 MCS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한다. 그러면 그 편견이 차별이 되어 MCS 환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



나는 그런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눈초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주인공이다. 우영우도 자폐 때문에 사회적 편견을 받았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편견의 벽을 넘어버린다. 우리 세상에는 장애, 피부색, 성별 등으로 따돌림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능력을 보지 않고,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피부색 차별! 나는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남녀차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나는 남자 아이들보다 축구를 잘하는데 남자 아이들이 나를 축구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실력이 좋다면 오히려 환영받아야 하는데...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과 실력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처음에 하늬는 MCS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연우의 도움 덕분에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간다. 우리도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또 한번의 기회

- 『시간을 건너는 집』을 읽고 -

임승준 / 창원도서관장상 청소년 수상자



‘지금 이 시간을 지우고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있다면’이라는 부제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있으면 과거 내가 후회했던 시간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새로운 시간을 누리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에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착하고 모범적이지만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선미는 불행하고 안쓰러운 아이였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신발장에 있던 흰색 신발을 신고 등교를 한다. 그렇게 학교에 다와 갈 때쯤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집 앞에서 주름진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께서 넌 선택받은 아이이고 그 신발을 신어야만 이 집이 보인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이번 주 금요일 5교시에 이곳에 오라고 한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본 선미는 금요일 5시에 작은 집으로 들어갔고 깜짝 놀라게 된다. 자신 말고도 3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모인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고민을 한 개씩 가지고 있었다. 이수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매일 남자를 찾아다니는 엄마와 함께 살아 항상 분노에 찌들어 있고, 자영이는 학교에

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자존감이 바닥에 있으며, 강민이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우울 of 우울한 만남이 지속되던 그때 선미가 며칠 전에 만났던 할머니와 어떤 아저씨와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12월 31일까지 이 집과 운동화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집에 나온다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의 문’에 들어갈 기회를 준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한다. 또한 이 집은 뭔가 신기했다. 4명이 다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가지 않았고 이 집을 본 장소도 각기 달랐다.

그렇게 반신반의 하는 마음과 우울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보낸 시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렸다.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친해져 정이 쌓여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선미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이수도 엄마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으며 자영이에 대한 괴롭힘은 심해져 갔다. 그렇지 않아도 심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의 상황이 나빠지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생겼다. 자영이를 괴롭히는 일진들이 자영이를 부른 것이다. 자영이는 무서움에 이수를 붙렸고 자영이가 괴롭힘을 당하던 사이 이수가 와서 일진 중 한 명을 주머니칼로 찔

렸다. 그 후로 도주하던 이수는 붙잡혔고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

며칠 뒤, 이제 드디어 시간을 건널 수 있게 된다. 그때 강민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그는 이미 집과 운동화를 한번 경험한 아이였다. 그는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학교폭력한 일이 후회스러워 시간의 문을 들어가려다 이사를 가고 실패한 이수같은 아이였던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걱정을 훌훌 털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은 각자가 원하는 문을 열고 원하는 시간에서 예전보다는 더 충실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된다.

읽고 나서 30분은 많은 스토리가 한번에 뇌에 들어와 과부하가 생긴 것 같이 어려웠지만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니 에피소드가 정리되었고, 다른 책과 다르게 시간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전체 스토리뿐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시간의 소중함까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라는 소재를 쓴 것도 한몫 하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소재를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로 풀어낸 것도 놀라웠고 독특했다. 그중 하나로 에피소드 이름이 모두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책들은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의 심적 변화나 사건의 전개를 제목으로 넣지만 이 책은 시간의 흐름을 월별로 에피소드 제목에 넣어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하기 편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린 금같이 써야 하는 게 시간이라 배우며 소중히 시간을 보낸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인 시간에 대한 이야

기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아 더 흥미로웠던 것 같다.

우린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신이 체감하는 시간 속도도 달라진다. 월요일은 느리게 가지만 토요일은 빨리 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았다. 어떤 때는 빠르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작가가 시간은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느껴진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를 사랑하자는 속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4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은 과거 또는 미래로 가기를 원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마법 운동화도 집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사랑해야 한다.

작가의 말에 ‘어느 날 하얀 운동화를 받더라도 망설임 없이 현실의 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만큼 당신의 삶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는 현실을 사랑하고 삶을 행복해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어떤 때는 누구보다 행복했지만 굉장히 슬펐던 시간도 꽤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현재가 아름답게 빛날 것 같다. 그리고 내 주변에 우울한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해서 친구들의 삶에도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나는 '대한민국의 살림하는 남자'다 -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을 읽고 -

양승호 / 창원도서관장상 일반부 수상자



눈을 뜨니 아침 7시다. 큰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살림하는 남자'다. 오늘도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 어제 먹었던 반찬을 내면 아내와 아이들은 도끼눈을 하고 식탁을 쳐다본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콩나물국, 계란국 등 출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뚝뚝 국을 끓인 후 마지막에는 마법의 가루를 살짝 첨가한다. 급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만, 맛이 중요하다. 눈 비비며 일어나 맛있게 밥을 먹는 가족들을 보며 보람찬 하루를 시작한다.

식사 준비 외에도 집안일에는 육아, 청소, 빨래, 재정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지금처럼 신혼 초에도 적극적으로 살림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가사노동을 나의 일로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신혼 초, 아내는 요리와 설거지를 나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기로 하고 별 다툼없이 잘 지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집안일과 육아로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키우느라 3년간 휴직을 했는데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많은 집안일을 해야 했다. 나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저녁 시간 이후로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미활동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니 철이 없었다. 아내는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이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인데 나는 그 잠깐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나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까지 했다. 아내의 가사노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나는 생색을 내며 집안일을 했다.

결혼 9년 차 아이들이 자라고 아내가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함께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서 집안일을 내가 좀 더 맡기로 했다. 그래서 요리와 설거지,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가끔 요리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지만 전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메뉴 고민부터 장보기, 재료 손질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까지 정말 끝이 없었다. 엄마들이 왜 아침부터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지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했다.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남녀 공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 시대 여자는 임신과 출산

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로 음식 장만과 의복을 담당했다면 남자들은 다양한 생계 활동을 비롯해 의식주 마련 등 안살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산 증식이나 노비 관리,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 접빈객과 그 밖에도 정원 가꾸기, 자식 교육, 가족 돌보기 등 정서적인 활동에도 참여했다. 더 나아가 아내나 어머니, 누이 등 여자의 작품 활동을 통한 사회적인 자아실현에도 외조했다. 멀리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편지로 집안의 농사일과 노비 관리, 자식 교육까지 담당했던 퇴계 이황,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에게 직접 장을 담그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던 연암 박지원, 몸이 아픈 아버지 숙종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탕약을 올리곤 했던 영조 등 조선의 남자들은 ‘기화만사성’,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무엇보다 집안을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모습을 보였던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집안일은 여자의 역할로 규정하고 남자는 오로지 집 밖에서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도록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역사의 가부장제 문화는 생각만큼 그리 길지 않았다.

‘1인 가구와 핵가족이 늘어나는 시대에 남녀의 역할 구분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집안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울어진 가사노동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가정생활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한국의 살림하는 남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과잉 노동에 지친 남자들이 가사노동과 자녀들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체적으로 집안일을 담당했던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처럼 가정에서의 남자들의 양육과 가사분담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살림하는 남자다.’라는 말이 유별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3

특별
글마당

책임 소감

책담 개관 특별행사 '책담 소감'

창원의 빛! '책을 담는 공간' 책담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To. 책담
내가 2달 동안 너만 기다려왔어. 앞으로 너와 책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같이 재밌게 놀면 좋겠어. 정말 달라진 책담! 응원할게~

아늑하고 여유로운 책담. 책사랑이 절로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창 보며 책 읽는 기쁨으로 일주일 버려 봅니다.
모두 파이팅!

깨끗하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
자랑스럽고 자주 이용할게요.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곳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도서관 기대할게요.

책담 개관 특별행사 '책담 소감'

창원의 빛! '책을 담는 공간' 책담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창원 시민들의 책을 담는
멋진 곳이 되길 바랍니다.

창원 시민들의 책을 담는
멋진 곳이 되길 바랍니다.

넓고 깨끗하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서 좋아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창원도서관이 더 발전되서
너무 좋고요. 자주 책 보러 올게요.
그리고 도서관이 꼭 제방처럼
정말 정말 아늑해서 좋아요.
39번째 생일도 축하해요.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온 이후 오랜만에 왔는데 넘 좋아요.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 함께 합니다.

5년 만에 왔는데 벌써 39번째라니.
나의 10대를 책임진 창원도서관이 20대~50대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새로 지은 곳 시설이 너무 좋네요.
가족들과 다시 오겠습니다. 책담은 우리의 빛.

4

직원 글마당

유 현 (문헌정보과)
배연정 (독서문화과)
박다정 (운영지원과)

창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나의 성장일지

유 현 / 문헌정보과

'창원도서관, 새로운 시작'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학생활과 공무원 수험생활을 끝내고, 2022년 1월 1일 27살의 나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시작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곳 창원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의 일은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도서관 업무 현장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웠던 정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황, 이용자, 자료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대처해야하는 스펙타클한 '현장'이었다.

'봄과 여름: 치열했던 어린이 자료실'

나의 치열했던 첫 현장 '어린이자료실'의 기억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린이자료실은 특성상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등을 기획하고, 각 행사에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책에서 배웠던 이론과는 달랐고 반복적인 일들에 익숙해진 나에게는 당황스러운 업무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니던가? 다행히도 훌륭한 선배님들을 만나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선배님들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나 역시도 하나라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도서관의 선례를 찾아보는 등 한 명의 사서로서 자리 잡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하는 나날을 보냈다.

**'가을과 겨울:
책담 개관,
그리고
귀중한 경험'**

10월 28일 개관식 날짜가 정해지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 하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되었다. 기존 자료들을 책담, 모아2, 모아3, 보존서고, 함께누리 등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전에 책 선별 작업을 하고, 새롭게 라벨 작업 등을 해야 했다. 매일 매일 분류를 하고 책을 밴딩기로 동여 매는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건물에서 시행할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야 했으며, 가구, 물품 등을 이전하고 폐기하고 구입하는 다양한 과정들을 해야했다. 신규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으며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창원도서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해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 발령받아 행사 안내문 하나 만들기도 부담스러웠던 내가 이제는 어느새 동아리, 독서교실, 도서관 나들이 등 행사 담당자가 되어 아이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용자들의 시설, 행사에 대한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니 나도 이제 어엿한 사서가 되었나보다 느낀다. 아직은 햇병아리 사서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더 큰 성장을 바라며 창원도서관 성장일지를 마친다.

아는 만큼 즐긴다

배연정 / 독서문화과

거제에서 창원으로 발령을 받아 창원도서관으로 왔다.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도서관에 오니 모든 게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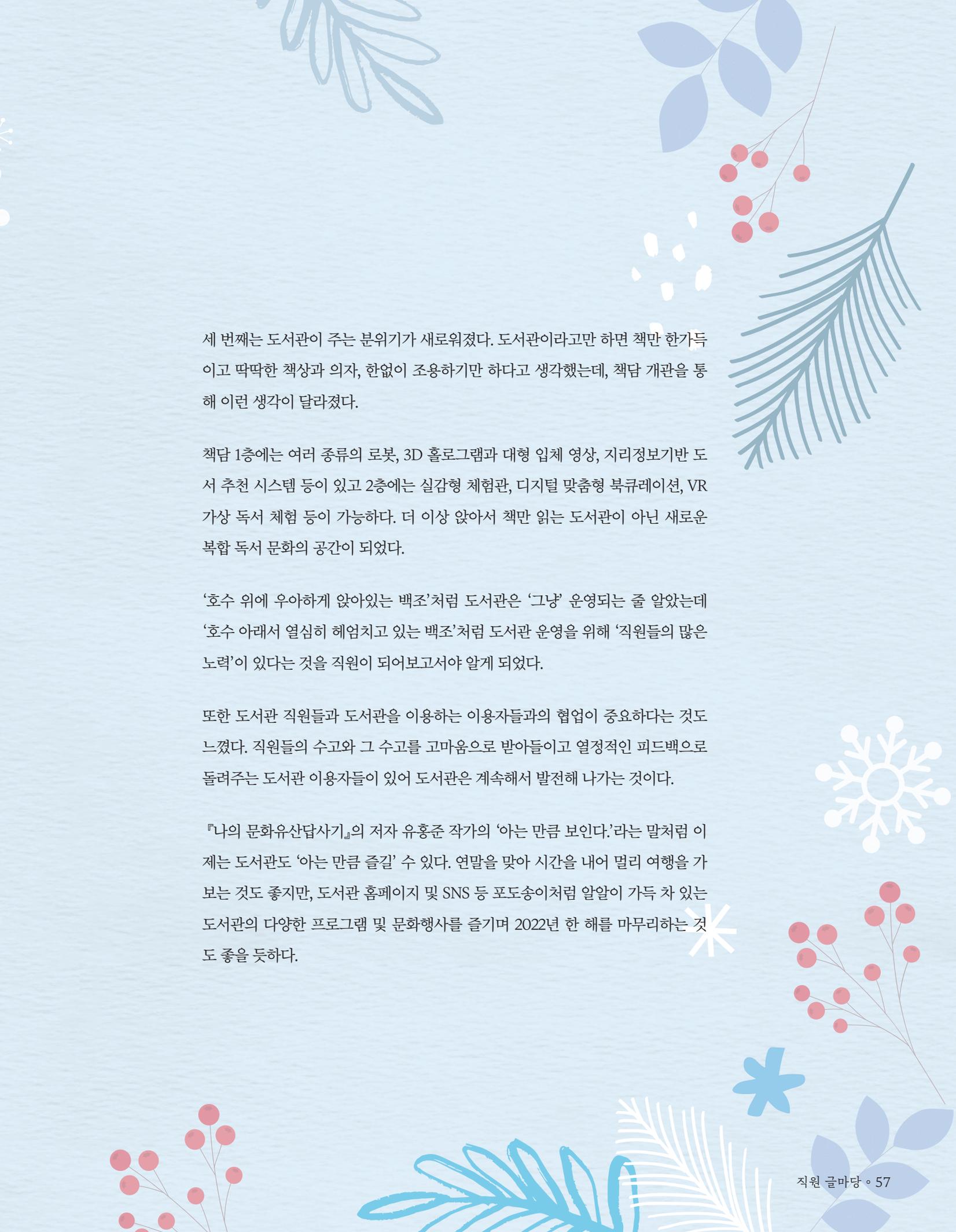
그 중 몇 가지를 적어보자면, 첫 번째는 너무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아기가 있어서 문화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아기와 함께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비용도 너무 비싸서 수강을 후회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창원도서관에서는 유아,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수강료도 무료이다. 또한 강사의 질도 높고 강의실도 깨끗하며 수강생 관리도 철저하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도 있어 퇴근 후에도 수강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원데이클래스 및 체험 행사 등도 있다.

두 번째는 강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행사 운영이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무료이다. 도서관에 와서 인형극, 매직쇼, 버블쇼, 피아노 연주회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담당했었다. 그 중 특히 인형극과 버블쇼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했는데 아이들이 인형극 관람에 집중하며 호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인형극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 도서관에서 양질의 인형극을 선정해주어 감사하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다.

또한 버블쇼 행사도 너무 좋았다. 날씨가 좋아 주말 오전부터 버블쇼를 보기 위해 부모님과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서로 손을 잡고 책담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 비눗방울을 잡기 위해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 태워주는 모습, 행사가 끝나고 너무 재미있었다며 신나서 돌아가는 뒷모습이 아직까지 눈앞에 선하다.



세 번째는 도서관이 주는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도서관이라고만 하면 책만 한가득이고 딱딱한 책상과 의자, 한없이 조용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책담 개관을 통해 이런 생각이 달라졌다.

책담 1층에는 여러 종류의 로봇, 3D 홀로그램과 대형 입체 영상, 지리정보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 등이 있고 2층에는 실감형 체험관, 디지털 맞춤형 북큐레이션, VR 가상 독서 체험 등이 가능하다. 더 이상 앉아서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복합 독서 문화의 공간이 되었다.

‘호수 위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백조’처럼 도서관은 ‘그냥’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호수 아래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백조’처럼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직원이 되어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직원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직원들의 수고와 그 수고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인 피드백으로 돌려주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어 도서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작가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도서관도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 연말을 맞아 시간을 내어 멀리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 등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가득 차 있는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즐기며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내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

박다정 / 운영지원과

순간 순간 찾아드는 많은 감정에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어지곤 했다.
어디서 그 많은 감정들이 오는 건지 그대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이런 감정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답이 아니라도 원인이라도 알고 싶었다.

조심스레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얘기도 했지만 늘 답은 같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어릴 때 언니가 보고 또 보고 하던 책이 있었는데 언니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굴에 갖가지 표정을 지으며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때는 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책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강머리 앤』 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빨강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고 나도 푹 빠져서 그 계기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랑스런 캐릭터인 앤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앤의 마니아가 되어 앤과 관련된 소품이나 물건을 마구 사들이곤 했다. 앤처럼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캐릭터가 있을까 싶다. 나는 불안한 감정이나 소심한 감정이 찾아오면 앤을 상상하곤 한다. 우울한 감정에 푹 빠져 있는 게 너무 싫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를 책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한 책은 법정스님의 『무소유』였다. 우연히 어머니가 보시다가 책꽂이에 꽂아두신 책을 들어 읽다가 뭔가 머리를 때리는 듯한 작은 깨우침이 느껴졌다. 순간 내 방의 물건을 살펴보며 너무 많이 가진 게 아닌가 싶었다.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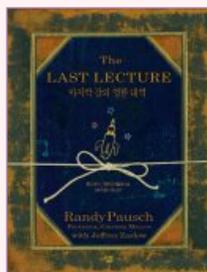
그 후로 법정스님의 책은 모두 읽었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면 꼭 손에서 놓지 않는 책들이 되었다.



또한, 법정스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책으로 소개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나의 최애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욕심이 커서 감정까지 흔들 때 나는 꼭 월든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가 소중한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가장 좋아해서 되새기는 『월든』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꿈을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간다면,
꿈꾸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에서 기대하지 않은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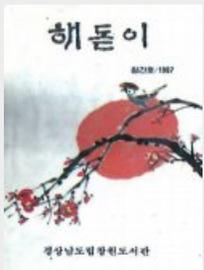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개하고픈 책은 랜디 포시 교수님이 쓰신 『마지막 강의』로, 이 책을 통해 곰돌이 푸의 티거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인생을 티거처럼 살 것인지, 이요르처럼 살 것인지 결정하세요”

근심걱정에 항상 찌푸리고 사는 이요르가 될 것인지, 죽어가고 있지만 신나고 즐겁게 사는 티거가 될 것인지...

여전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휘둘리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 덕분에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결에서 친구처럼 함께 할 나의 벗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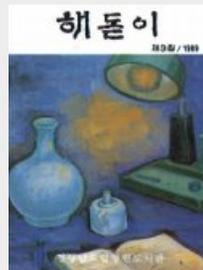
'해돋이, 빛의 여정'



제1집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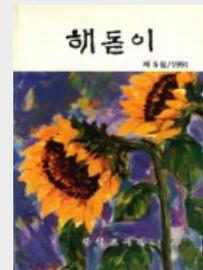
제2집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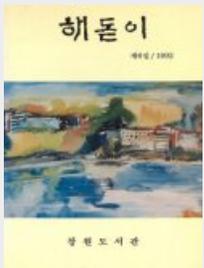
제3집 1989년



제4집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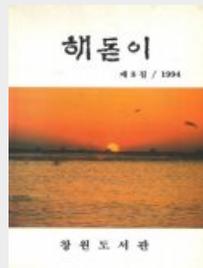
제5집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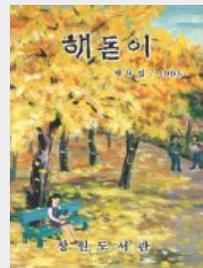
제6집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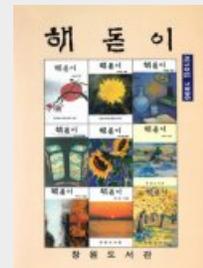
제7집 1993년



제8집 1994년



제9집 1995년



제10집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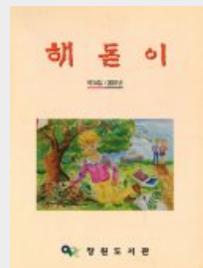
제11집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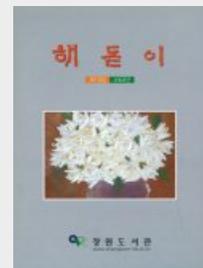
제12집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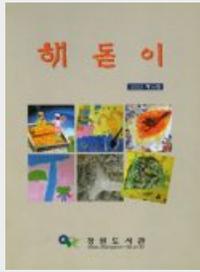
제13집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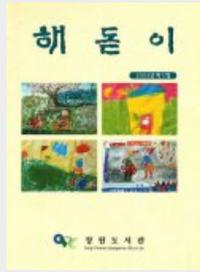
제14집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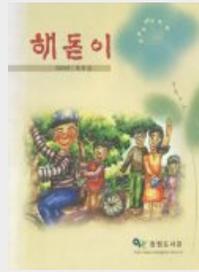
제15집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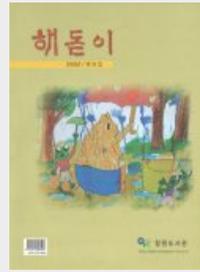
제16집 2003년



제17집 2004년



제18집 2005년



제19집 2006년



제20집 2007년



제21집 2008년



제22집 2009년



제23집 2010년



제24집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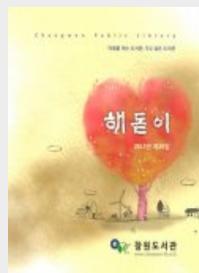
제25집 2012년



제26집 2013년



제27집 2014년



제28집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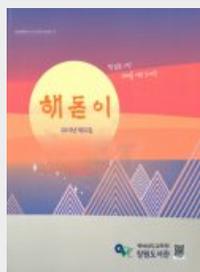
제29집 2016년



제30집 2017년



제31집 2018년



제32집 2019년



제33집 2020년



제34집 2021년



제35집 2022년

해돋이 2022년 제35집

인 쇄 일 2022년 12월 30일

발 행 일 2022년 12월 30일

발 행 행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055)278-2833

cwlib.gne.go.kr

비매품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Tel. 055)278-2833
cwlib.gne.go.kr